

이상돈의 '바른 소리'



야권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4·29 재보선은 예상했던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이 났다. '성안총리 스트'라는 뜻밖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 분열과 저조한 투표율이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표는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도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의 관악을 여당에 내어준 것이 가장 아픈 패배일 것이다. 인천 서구-강화율은 원래 여당 우세 지구이고 성남 중원은 일찌감치 여당 우세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한 것이 이번일 수는 없다.

광주 서구에서 유권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승리를 안겨 주었으니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 또다시 황색 경고를 한 셈이다.

4·29 재보선은 정동영, 천정배 두 중진 정치인이 큰 변수로 작용한 셈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도 이 두 사람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연 이 두 사람의

독자 출마가 진정한 명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동영 전 의원은 야권 전체에 참패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행로에도 중저부를 찍은 악수(惡手)를 두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를 가상적(假想敵)으로 설정한 그의 출마는 애당초 무모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 진보 시민사회도 그를 말리지 못했으니, 가히 '진보의 파탄(破綻)'이라고 할 만하다.

천정배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에서 당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선택한 광주 유권자들의 속내는 그를 지지했다고 하기 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에 대해 또다시 경고를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뒤졌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김부성 대표를 중심으로 지명도가 높은 당내 인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선거운동을 했다. 반면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는 문재인 대표의 옆에는 그와 해당 지역구 후보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거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느낌을 주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목할 만한 후보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의 후보들은 새누리당 후보들에 비해서 지역 밀착도 마저 뒤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감동있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권자들은 야당 후보자 이름 석 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투표장에 갔을 것이며, TV에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유세 장면에서 주인공은 문재인 대표였지 해당 지역의 후보가 아니었다.

작년 재보선에서 동차에서 벌어진 사태에 놀란 나머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보다는 지역구를 관리해온 인사들을 안일하게 공천하는 데 그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문 대표는 선거 다음날 공식발표를 통해 국민의 여망을 받아 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심기일전해서 수권정당으로

서 야당을 이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현 상황에서 문 대표가 물러나면 야당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고 말 것이다. 또한 당 대표가 된지 3개월 만에 치른 재보선에 실패했다고 해서 당 대표에 대해 퇴진을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는 문 대표에게 비상한 각오로 당을 쇄신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아야 한다. 문 대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야권 전체를 쇄신하는 일대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은 물론이고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권은 실패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결과에 표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 선거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준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여론의 국정운영 능력도 취약하기만 하다.

결국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야권이 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 같은 야권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社說

새정치연합 야권 재편 심각히 고려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30일 4·29 재·보선 참패와 관련,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철제철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선거의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문 대표가 헤쳐나가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내부에서 친노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면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야권 분열과 함께 분당이라는 극단적인 변수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서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이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면서 호남발(發) 정계 개편의 회오리를 예고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천 의원은 내년 총선에 광주 8 곳을 포함, 호남 전체에 교두보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정치연합 자체

에서도 작금이 술렁이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야권 분열이 재연될 경우 호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야권이 재편되지 않으면 차기 대선에서도 기대감이 될 수밖 없었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호남의 무서운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이 '탄핵'에 가까운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이 친노 중심으로 이끌려 내는 소위 '덧발'이라는 호남을 외면해 온 데 있다. 천정배, 정동영 등이 탈당해 야권이 분열된 것도 이들을 밀어낸 친노 탓이라 할 수 있다. 호남 민심 복원과 친노세력 청산은 환골탈태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야권 전체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고 야권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만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문 대표의 막연한 화법과 안이한 대처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정부 복지예산 안아 지방 재정난 덜어줘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초단체는 직원들 임금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시 재정자립도는 59.5%였으나 이후 하락을 거듭해 2013년 40.1%, 2014년 36.8%까지 낮아졌다. 반면 지출예산 총 비중이 큰 사회복지비의 경우 2011년 30.4%에서 올해에는 36.2%까지 커지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사회복지비 등이 늘면서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다.

전남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14.5%로 지난 2000년에 비해 2%p 떨어졌다. 재정수입은 11조 3763억 원으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는 주요인은 복지비 증가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출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등 제도 개편으로 부담이 2년 전에 비해 올해는 10조 원 정도 늘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각종 복지정책을 양산하고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지방 재정난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각종 세제를 조정해 지방의 부담은 줄이고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벗어날 수 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증세를 해야 하고 어렵다면 눈치 보지 말고 선별복지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자원 배분 시 지역의 낙후도 등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기고



박승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美 스탠퍼드대 박사

전략투표, 교차투표, 새판투표

천정배, 정동영이 지금은 정반대로 호남 정치 '부활'을 외치게 됐을까.

그들도 스스로 나왔다가보다는, 호남 출신으로서 친노에 '뺨' 당하고 내몰려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 안에 성장 가능한 호남 출신 정치인이 몇 중화될 것 아닐까. 호남인들의 가슴에 문헌 내밀한 질문이다.

지금 '지지'를 '출대'로 응답하는 야당의 승심이 바뀌었다고 호남인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평소에는 먼산 보듯 뒷집지고 있었다가 선거철만 되면 물러와 "그동안 서운하셨죠?" 하면서 표만 구걸하는, 당선 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선거철새'의 '갑질'이 과연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천정배 후보의 당선은 호남을 '출'로 여겨온 친노 불모정치의 사슬을 고갈할 거 부하는 광주의 자주선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차별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행하면서, 호남을 지역감정에 매몰된 '전략투표'의 온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결단의 표현이다.

지금부터는 야당이 '문지마 투표', '논

감고 지지'를 줌으로써 스스로 '출'이 된 과오를 끝내야 한다. 낡은 '여-야' '민주-반민주' 틀에 갇혀 동일 정당에 몰표 주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 여당은 호남을 '포기'하고, 야당은 '무시'하는, 이른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서 호남만의 고립과 낙후를 자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호남은 순정을 주고 조롱만 받은 허망한 '전략투표'를 버리고, '교차투표' 또는 '새판투표'로 나가야 한다.

'교차투표'는 무조건 특정정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당을 찍고 다음에는 야당을 당선시키는 유연한 투표다. 오늘날 충청도가 눈부신걸 발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번은 여당, 한번은 야당을 지지하는 교차투표 때문 여당도 야당도 그곳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차투표를 하면 여당은 '포기' 대신 '관심'을, 야당은 '무시' 대신 '대접'을 가지고 호남을 찾을 것이다. 호남의 낙후

를 벗기겠다고 서로 앞다투어 공약할 것이다.

교차투표보다 나은 최선의 길은 당당한 호남정치 부활을 위한 '새판투표'에 있다. 호남의 독자적 세력화를 도모하면서 혁신적 민주정당을 건설하는 새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호남만의 좁은 지역정치에 매몰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새판투표는 기존 정당의 좁고 낡은 구시대적 기득관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지리멸렬한 기성 정치만을 갈아엎고 일대 혁신을 일으킬 새판정치의 지평을 호남이 앞장서 리드해 나가자는 것이다.

새판투표가 실현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지역 등권정치가 앞당겨질 것이다. 변방으로 내몰린 호남이 다시금 한국 정치를 선도할 중심지로 복귀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호남을 무시하거나 천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야당 소속 호남정치인들을 각성, 분발하게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때때 그랬듯이, 한국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혁신적 민주동력이 다시 한번 호남에서 창출 될 것이다.

기고



박경우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실장

창업자와 지원기관이 상생하려면

력 체제 구축과 확대는 더욱 중요해졌다.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으로 풀이하는 단순한 지식의 개념이 아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검증해 수익을 창출,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종합 예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어울리는 가장 이상적 기업 이미지를 먼저 그려본다면 지원기관의 목표와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매출액이 높은 기업,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 고용창출이 능력이 좋은 기업, 제품의 품질이 좋은 기업 등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를 기업과 시장(고객)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은 고객이고 안고 있는 수많은 니즈(needs)중 일부를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기업이 운영에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순환구조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 기업에게 자금을 투입해 그 대가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투

자자나 용자기관이 맞물려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커다란 의미로 본다면 근로자나 투자자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창업기업은 외부 고객의 만족에 최우선 목표를 책정해야 하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고객의 만족을 병행해야 한다. 비즈니스 설계단계에서는 외부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발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역할이 바로 창업지원기관의 임무일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내부고객인 근로자와 투자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업가정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원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보육사업은 1999년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돼 부흥기를 맞이해 2015년 현재 281개의 창업보육센터에 6492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초기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창업 성공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 결실을 맺어 일반

창업기업의 성공률인 32%보다 38%나 높은 7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창업보육사업의 운영기관들이 창업지원 전문가인 BI매니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지속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2000년 초에 대부분 구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와 지원체계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비즈니스의 개념이 공존함에 따른 시스템의 충돌을 과감히 혁신해야 하고, 창업보육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으나 하나의 독립된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이를 수익창출과 연계해 기업의 탄생에서 성장을 지원 하는 시장 친화적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4 발표장에서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서 있다"라고 밝힌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단순한 경영이나 행정절차가 아닌 시장이나 고객과 교감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다. 기업, 지원기관, 정부 등 모든 비즈니스와 연관된 조직이라면 이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4일자 광주일보를 받아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노란 유채꽃과 초록 빛 청보리가 어우러진 고창 학원농장 사진 덕이었다. 내가 꼭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광활한 보리밭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길게 뻗은 신작로, 하트 모양의 오밀조밀한 길까지 어우러지니 한쪽의 그림 같았다.

항공 촬영을 했다 싶었는데 취재용 '드론'을 띄웠다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었다. 사진부에서 직접 규정한 드론은 작지만 아주 똑똑한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Drone)'은 조종사 없이 전파의 유도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원동은 '발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로,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얻게 된 이름이다.

드론은 군사용으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기업,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아마존 등은 드론을 통한 배송 시스템을 선보였

드론

위대 출신 아마모도 야스오가 아베 총리 관저로 드론을 날려 보낸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자진 출두한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소식을 듣고 '원전 반대'를 호소하려 드론을 날렸다고 밝혔다. 드론에는 후쿠시마현에서 채취한 모래 100g을 넣었고 미량의 방사성 세슘도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테러리스트가 폭발물을 실은 헬리콥터를 원격 조종해 원전 테러를 가하는 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천공의 발'을 모방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고 도미노 피자는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드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드론 산업 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내년 1월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하는 '2016 드론쇼 코리아'가 열린다.

드론은 미디어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사용 중이다. 앞으로 광주일보 지면에서도 사진기자들이 드론으로 촬영한 다양한 영상의 사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문 보는 재미가 또 하나 늘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